

≡ 뉴스 기획 연재 오피니언 PR마당 지난연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법보신문

전체기사 구독신청 광고문의

[천리순례 8일차]버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08 16:25 수정 2021.10.08 17:17 호수 1604 댓글 0

새벽 갑작스런 비에 당황...부처님 가피로 이내 찾아들어
구불구불 가파른 살피재에 순례단 얼굴에는 붉은 땀방울



황금빛 물들어가는 가을 들녘 속으로 나아갔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10월8일 30km를 행선해 가야산이 품은 두 번째 목지적 법보종찰 해인사 초입의 거창군 가조면에 도착했다.

새벽 5시 갑작스레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리순례를 시작한 후 처음 맞이한 비 소식에 우의를 꺼내 입는 순례단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일어났다. 빗속을 걷는다는 건 불편을 넘어 잠자리와 다음 일정까지도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행선 내내 순례단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다행히 빗방울은 이내 잦아들었다. 부처님의 가피였다.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교계

대법원, “조계종노조 징계 부당하다”
판결



한마음과학원, 제6회
학술세미나 열려

2001년 중단된 ‘뇌허불교학술상’...20년 만에 ...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하현주 수상...1...
불교문예연구소, 제18차 학술대회 개최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사유하는 기쁨’ 출판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소집...‘정청래 의원...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주년 기념 인연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국무...

연재

< >

세심청심

차별없이 내리는 비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기도 김준우(48, 법성)...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7. 안동 봉정사 단상





새벽 5시 갑작스레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리순례를 시작한 후 처음 맞이한 비 소식에 우의를 꺼내 입는 순례단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일어났다.



행선 내내 순례단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다행히 빗방울은 이내 찾아들었다.

순례단은 거창 위천 둔치를 지나 바래기재 넘어 느리지만 힘찬 원력의 발걸음을 이어갔다. 하늘 가득 드리운 먹구름 덕분에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어 오히려 정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난적은 이날 순례의 마지막 고개인 살피재였다. 해발 396m에 불과한 살피재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계속돼 순례단의 얼굴에 연신 붉은 땀방울을 흐르게 했다. 구불구불 이어진 재는 끝날 줄을 몰랐고, 순례단은 계속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다리를 연신 움직여야 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나타나는 법. 30여분의 고행 끝에 살피재 정상에 선 순례단은 잠시 휴식을 통해 숨을 고른 뒤 다시 가야산을 향해 나아갔다. 산속 시골 풍경은 이미 가을이 가득 차 있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등성등성 이미 알곡을 견어내 논들은 가지런히 놓인 벼짚으로 계절의 순환을 일러주고 있었다.

무진등

마하의료회장 김정순 약사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5. 지옥의 소리-상



많이 본 뉴스

- 01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 "전면 재검토"
- 02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03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4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 05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6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 07 오대산 정취와 뮤지컬을 한눈에... '사찰 뮤지컬'이라는 장르 탄생
- 08 [천리순례 9일차] 화염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봉은사 개산대제,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업그레이드



순례단은 거창 위천 둔치를 지나 바래기재 넘어 느리지만 힘찬 원력의 발걸음을 이어갔다.



가을 풍경을 눈에 담으며 걷는 순례단에게 법보종찰 해인사까지 남은 거리는 27km. 순례단은 가조패밀리관광호텔에서 바랑을 내리고 8일차 순례를 회향했다.

동참대중 김나현 불자는 “삼보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승광사가 재적사찰인 그의 본명은 짚음 티 평리로 베트남 호찌민이 고향인 결혼이주여성이다.



해발 396m에 불과한 살피재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계속돼 순례단의 얼굴에 연신 붉은 땀방울을 흐르게 했다.



김나현 불자는 “지난해 자비순례를 언론을 통해 접한 후 큰 감동을 받았고, 올해 삼보사찰을 걸어서 참배한다고 해 남편과 두 딸의 동의를 얻어 참가를 신청했다”며 “갑작스런 참여로 준비가 부족해 처음 며칠은 고생했지만, 도반들의 도움과 격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승 삼보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순례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누렇게 익은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등성등성 이미 알곡을 견어내 논들은 가지런히 놓인 벼짚으로 계절의 순환을 일러 주고 있었다.

거창=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중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달다
-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 다짐하며 천릿길 오르다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울캠핑장 도착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사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0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